



##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지하차도 건설 ‘만지작’

광주시에 만성 정체 구간인 서구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교차로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키로 해 이 일대 교통 불편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는 500억원이 소요되는 720m 구간과 1천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1.08km 구간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최종 건설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풍암교차로 정체 구간 교통 처리 개선을 위해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구간 720m(최저점 10m)에 대해 왕복 4차로 지하차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 계획 상 총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지하차도 건설은 100% 시비로 추진되며, 공

사기간은 약 3년이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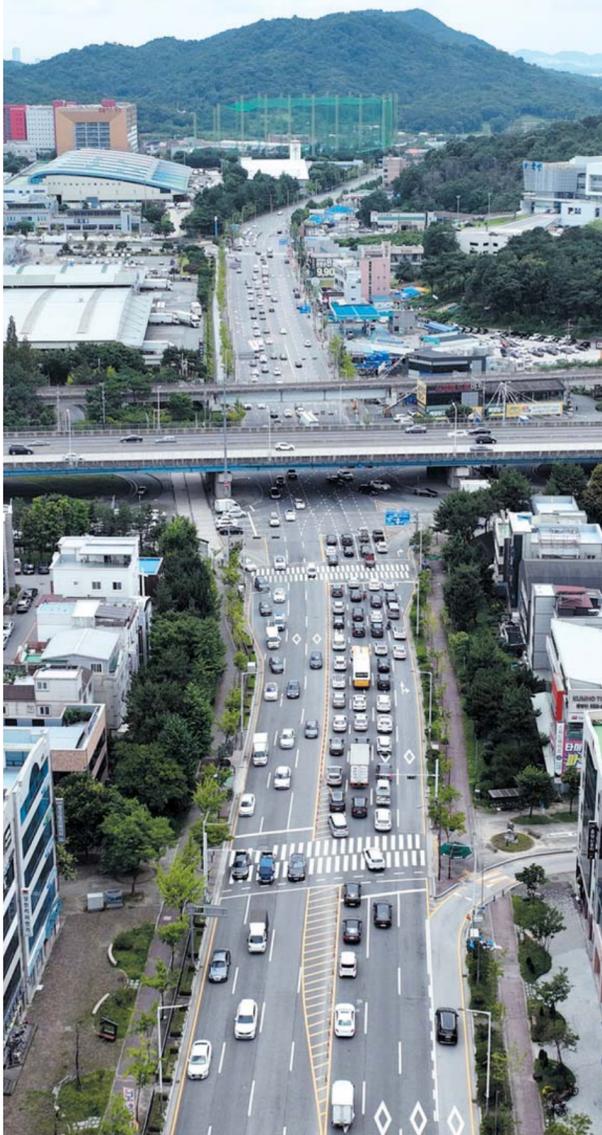
광주시는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풍암교차로를 입체화(지하차도 등)할 경우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흐름 개선으로 수송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달 13일 일시 정지됐다.

매월유통단지 교차로에서 풍암교차로를 지나 풍암마재우체국 사거리 신호등 앞까지 이어지는 720m 구간에 지하차도를 만들 경우 교통 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 교수, 용역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광주시, 만성 체증 해소 위해 왕복 4차로 입체화 검토  
720m 구간 520억 vs 1.08km 구간 1천200억 놓고 고심  
市 “교통 시뮬레이션 등 통해 최적안 마련 추진 방침”



만성 정체 구간 광주시가 만성 정체 구간인 서구 풍암교차로-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 시장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키로 해 교통 불편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교차로 주변 도로. /김예리 기자

720m보다는 약 360m 더 늘린 운리초등학교 인근 사거리까지 1.08km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교통 체증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20m로 건설하면 매월유통단지 교차로에서 마재우체국 앞 신호등까지 상시 체증이 발생하는 곳여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해당 지점을 지나는 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08km 지하차도 건설 방안의 총사업비는 1천200억원 가량으로 720m보다 7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시 입장에서는 만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720m 방안이

사업비도 적은 데다, 마재우체국 사거리에서 좌회전(금호동 방향)과 우회전(동부센트레빌 방향)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풍암교차로의 평균 지체 시간은 3127초, 주행 속도·시간, 통행 자유도 등 도로의 질적 운행 상태를 가리키는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수준인 'F' 등급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720m와 1.08km 구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교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 姜시장, 'TK신공항' 방문 '통합공항 해법' 벤치마킹

김진열 군위군수 만나 사업 전반 논의...공동 협력키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조성 중인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해 민간-통합공항 이전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군위군청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 및 추진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주민 설득 과정과 이전지인 군위·의성 공동합의 과정, 주민 자원책, 접근교통망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성공적인 민간-통합공항 이전에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후 강 시장과 김 군수는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실제 사업부지를 축소한 모형 조감도로 활주로, 소음완충지역 등 시설배치 계획을 살펴봤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신공항이라는 날개를 달고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명실상부한 공항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며 "미래를 보고, 청사진

을 함께 그려준 주민들의 민·관 협력 노력이 오늘날 군위군의 희망과 활력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성공적인 민·군 통합공항 이전 벤치마킹을 위해 군위군을 찾았다"며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광주·전남·무안의 지역소멸을 막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꾸준한 신뢰와 소통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추진을 위해 소음대책 토론회, 무안군 방문 설명회, 농촌일손돕기, 무안군 전체 세대 '약속의 편지' 발송 등 무안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중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3자 회동'을 갖는다. /박성강 기자

## ‘한센인 터전’ 고흥 소록도 국립공원 등 검토

환경부, 자연과 역사·문화자산 보전 마스터플랜 마련 착수

‘한센인의 터전’인 고흥군 소록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펍박 받던 역사를 알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소록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훼손지는 복원하는 한편, 섬에 남은 한센인 격리·치료시설을 유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스터플랜 수립 시 소록도를 국립공원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OECM),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소록도는 한센인 치료를 위해 외부인 접근이 제한된 곳으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특별한 역사·문화 자산이 있어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기에 보전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16년 이후 한센인의 치유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활용된 소록도 내 격리·치료 목적 건물들이 최근 한센인 감소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만큼 한센인 격리·치료시설을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3천966명으로, 이 중 71명만 '활동성 환자'이고 나머지는 치료 마무리 단계다. 한센병 활동성 환자는 1980년 4천97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98% 급감했다.

소록도가 한센인을 격리하는 공간이 된 것은 일제가 1916년 섬에 '소록도자혜의원'을 세우고 1917년부터 한센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다. 유전병이 아님에도 1900년대까지 한센인 임신과 출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이 유지되기도 하는 등 해방 전후로 장기간 인권침해가 이어져왔다. /연합뉴스

| Today                |     |
|----------------------|-----|
| 인터뷰·김현성 일자리재단대표      | 5면  |
| 광주·전남대졸 '백수' 20여만명   | 12면 |
| 1위 독주 KIA '홀런 군단' 변신 | 16면 |

KBS와 함께하는 키즈라라 여름축제

# 키즈라라 여름축제

2024.7.27(토) / 오전 10:00~

## 2024 키즈라라 여름축제

행사안내 | 물놀이장, 플리마켓, 체험존 등

공연시간 | 2024. 07. 27.(토) 19:00

공연안내 | 이무진, 경서, 메이트리

이무진

경서

메이트리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